

광주시교육청 특채 교원 바뀌치기 교육감이 진상 밝혀라

모르쇠 일관 의혹 증폭... 교육계 비난 빚발

광주시교육청이 교원공채에서 탈락자를 바뀌치기해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문(광주일보 13일자 6면)이 일고 있음에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6면>
14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3월 특정 사립고 전교조 교사 5명을 공임으로 특채하면서 탈락자 1명을 바뀌치기해 합격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언론들의 취재가 집중되자 대변인이 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감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교원채용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의 명단 공개와 구체적인 사실 확인 요구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시교육청이 교원부당 채용에 대해 합구하 교육계에서는 시교육청의 교원채용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고 인사권자인 교

육감이 몰랐을 리 없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만 무더기 채용된 배경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진보교육감 체제의 광주시교육청 행정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된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 여부를 떠나 장휘국 교육감이 직접 사안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장 교육감이 비리 적결을 강력히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전말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부패한 교단 개혁을 외치는 교육감이 교원 부당공채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채용과정 등에 대해 교육감이 명확하게 해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와 관련,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황스럽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교과부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을 의도적으로 선발하려 한 것은 아니다"며 "교원채용에 대해서는 교과부 감사 전에는 몰랐고 현장 감사가 끝날 무렵 인사담당자로부터 채점 오류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의 한 관계자는 "전교조 회원이라고 해서 채용된 교사들을 매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해당 학교에서 온갖 탄압을 자행해 도저히 근무할 여건이 되지 않는 처지의 교사들이 공임으로 옮긴 것을 문제삼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보수 교육감 시절에는 사립 교원의 공립특채가 더 공공연했다"고 덧붙였다.



안개 뒤덮인 상무지구 14일 오전 광주 상무지구가 안개로 뒤덮여 광주시청 등 고층 건물 일부만이 보이는 '안개 도시'로 변했다. 주초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하천을 끼고 있는 수원지구와 상무지구 일대에는 안개가 잦아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삼한사온 돌아왔다

주기적 기온 변화

올 겨울 광주·전남지역은 기상이변으로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였던 삼한사온(三寒四溫)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지역은 2~3일 동안 추웠다 3~4일간 평년기온을 회복하는 삼한사온의 주기적인 기온변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광주 지역도 지난 7일까지 평년기온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지난 8~10일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졌다.
이어 지난 11일부터 다소 포근했던 광주·전남지역은 15일부터 일부에 눈이 내리고 기온이 떨어져 17일까지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해경, 폭력어선 총기 적극 사용

전남도·의회, 中어선 불법조업 방지책 마련 촉구

해경 특공대원 살해사건을 계기로 전남도와 민주당 등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 하고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해경에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 총기를 적극 사용토록 하는 등 총기사용 매뉴얼을 대폭 단 순화하고 총기지급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서남해안 일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수산자원 보호와 해상안보 경계를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는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 적발건수가 2009년 381척, 2010년 370척에서 올해 12월 현재 438척(담보금 106억원)으로 급증한 가운데 전남이 118척(담보금 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산업화·조식화되는 데 국가 어업 지도선과 해양환경 지도단속은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국화와 국무총

리실, 법무부, 국방부 등에 국가어업 지도선을 현재 2척(1000t급)에서 6척으로 확대하고, 해경함정 역시 3000t급과 2000t급 2척씩을 6척씩으로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또 인력과 장비(물대포 집압장비) 보강, 불법조업 부담금 3배 이상 상향, 불법어획물 어구 몰수, 폭력 저항어선 선박몰수 등 처벌 강화, 밀입국 사범 신고 보상금 상향 등을 요청했다.
전남도의회는 김효남(해남·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서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획물과 불법어구까지 몰수하는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영토주권 수호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해경의 대형함정 건조, 개인장비 개선, 총기 사용 허용 등의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내년 예산에서 해경대원 증원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예결위에 제언했다"고 말했다.
이날 해양경찰청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한 전국 해양경

찰 지휘관 회의'를 열고 우리 관할수역에서 불법조업 의심선박이 정선 또는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선원들이 총기를 사용해 공무집행을 저항할 경우, 해경이 보유한 집압장비와 총기류 등 모든 수단을 적극 사용해 대표하기로 했다.
총기는 대퇴부 이하를 조준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총기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초청의 말씀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2011년 한 해 동안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성원과 협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조대인의 밤 송년한마당에 초청의 말씀을 드리오니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조대인의 밤』 송년한마당 행사
● 일시: 2011.12.21(수) 오후 6시
● 장소: 광주 라미다 호텔 5층(상무지구)
● 문의: 총동창회 사무처, 228-0197~8
*참석하신 동문님께는 소정의 기념품과 경품권을 추첨하여 드립니다.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신홍수

광주·전남교육청 청렴도 크게 하락

전국 7위→11위, 2위→8위 추락...광주시 4위, 전남도 15위

광주북구 기초단체 1위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청렴도가 전년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15위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으로 밀려졌고, 광주시는 전년에 비해 한 단계 상승한 4위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종합 청렴도는 7.61점으로 16개 시·도교육청 중 11위(4등급)를 차지해 전년도 7위에서 4단계 하락했다.
전남도교육청은 7.79점으로 8위(3등급)를 차지했지만, 전년도 2위에서

6단계나 추락했다.
지난해 5위였던 광주시는 8.56점으로 4위(2등급)를 차지해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지만, 전남도는 8.32점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5위(4등급)를 차지해 전국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2009년 4위(8.98점)에서 지난해 12위(8.38점)로 추락했다가 다시 올해 15위까지 하락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 북구 8.72점으로 전국 1위, 강진군은 8.67로 전국 2위를 차지해 가장 청렴도가 높은 1등급으로 평가됐다. 2등급 이상인 곳은 광주 동구(8.52), 목포시(8.38), 신안군(8.48), 장흥군(8.46), 보성군(8.40) 등이다. 해남군(8.06)과 광주 광산구(8.11)는 4등급을 받

아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지방공사에 대한 청렴도는 광주시 환경시설공단과 광주도시철도공사가 8.95점과 8.73점으로 2등급을 받았으며 광주도시공사는 7.90점으로 4등급을 받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2학년도 학부 신입생모집
정시모집 '가군'
[원서접수] 2011.12.22(목)~27(화)
www.kwangshin.co.kr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즐거운 날은 언제나 **안동** **등간안어고등어**
가족 이웃들과 따뜻한 **情**을 듬뿍 나누세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를 이어오는 우리 맛 지킴이 안동간고등어는 영광굴비와 더불어 우리 바다, 우리 어민을 지키는 우리의 생선입니다.
잇따른 FTA협정 체결과 외구산 수입생선이 물밀듯이 들어와 어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안동간고등어는 영광굴비처럼 우리 바다에서 난 우리 구내산 고등어만을 고집합니다.
안동간고등어의 원조 '우리생선 명가 청어당'에서 선보이는 모든 생선은 반만년 전부터 우리 어민들이 우리 바다로 나가 우리 어장을 지키며 잡아오던 고기입니다. 그러니 대를 이어오는 우리 맛일 수 밖에 없지요. 고객님이 불러 주시면 언제라도 열심히 달려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동간고등어의 제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간고등어 호남총판 대표 안봉한

대를 이어오는 우리의 맛 **등간안어고등어**
영광굴비와 더불어 우리 맛 지킴이

우자양업 본점 **청어당**
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우수식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HACCP) 지정업소

호남총판 (주)헤브론 국제무역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154-1 성화BD 3F Tel 1577-4929 Fax (062)233-7888 www.Hbron.com